

The Change in Relationship of Neighbor's Social Capital and Influencing Factors: Focusing on the Impact of Religious Activities

Youngju Hur*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levels of neighbor's social capital(neighbor's size, neighbor's trust, and neighbor's support) between 2012 and 2023,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among three capital type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Content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conducted in 2012 and 2023.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levels of neighbor's size, neighbor's trust, and neighbor's support in 2023 were all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2012. The impact of neighbor's size on neighbor's trust and support showed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but that the effect of neighbor's trust on support significantly decreased. The second finding is that age group, and whether one has children influenced neighbor's social capital in 2012 and 2023. And the religion belief status emerged as a new factor influencing neighbor's size in 2023, and the impact of religious activities on neighbor's trust disappeared in 2023.

[Conclusion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o activate community for the youth in urban areas, to establish child education community for the middle-aged male parents, and to strengthen club activities for elderly residents in rural areas. Additionally, it was proposed to implement education that highlights the values of concern for and love of one's neighbors for everyone, and to link religious activities with community-based group volunteer work.

[Keywords] Neighbor's social capital, Neighbor's size, Trust, Support, Religious activities

* **Corresponding author** Youngju Hur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E-mail : youngju@ns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이웃사회자본 간의 영향관계 및 영향요인의 변화: 종교활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허영주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웃사회자본(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2012년과 2023년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12년과 2023년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균차이분석과 변량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 비해 2023년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수준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그리고 이웃크기가 이웃신뢰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두 년도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웃신뢰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령대, 자녀유무는 2012년과 2023년 모두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23년 종교유무가 이웃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고 종교활동 참여가 이웃신뢰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도시지역 청년층을 위한 공동체를 활성화할 것, 중년 남성 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나눔터를 형성할 것, 농촌 거주 노인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기본 가치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종교활동을 지역사회 중심의 단체봉사활동과 연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웃사회자본,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종교활동

I. 서론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s)은 개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고 (Cornwell & Waite, 2009: 34), 이와 함께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김영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구분하고, 전문가, 기관을 공식적 관계망으로 구분하였다(Kim, 2010: 31). 이현민은 비공식집단을 다시 가족, 친족 중심의 1차적 비공식 집단과 친구, 이웃, 직장동료 중심의 2차적 비공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Lee, 2018: 45).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인가구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친구, 이웃, 동료와 같은 비혈연의 2차적 비공식적 관계망이 가족과 친척이 제공하는 심리·정서적 안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Lee, 2018: 45). 이 대체이론(substitute theory)은 향후 일인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웃과의 연결망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일인가구가 아니라도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척뿐 아니라 친구, 이웃, 동료 등 다양한 대상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Han & Kang, 2015: 81).

현대사회는 전근대사회와 달리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얇은 신뢰(thin trust)가 중요하며(Newton, 2009: 349), 비혈연집단의 대인 연결감 수준이 혈연집단과의 연결감 수준보다 낮지 않다(Lee, 2018: 110). 또한, 이웃과의 연결은 소속감의 증대, 공동체 의식의 형성, 사회적 화합의 중요한 근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는 요인이다. 이웃의 사회자본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포함한 모든 생애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다(De Silva et al., 2005: 620). 이웃은 사회적 연결망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보았다(Han & Kang, 2015: 80). 이웃연결망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산업을 진행해 왔다(Park, 2022: 2).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몇몇 선행연구들이 이웃연결망에 관심을 두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개인특성에 따라 이웃연결망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연구들, 이웃연결망을 통한 사회적 자본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들이었다. 먼저, 개인특성에 따라 이웃연결망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연구들은 생애주기단계별 이웃관계를 분석한 연구(Joung, 2014), 행정구역별 이웃관계 분석한 연구(Kim, Kim, & Kang, 2020), 주거환경 만족 유형별 이웃관계를 분석한 연구(Jung, Kim, & Nam, 2020), 개인특성, 건강상태, 거주환경별 이웃연결성 차이를 분석한 연구(Kim, Lee, & Kim, 2023), 종교유무와 종교활동 참석빈도가 이웃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Byun, 2019; Kim & Kim, 2016; Lee, 2018)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횡단연구로써 이웃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웃연결망과 이웃사회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분리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웃과의 고립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Han & Kang, 2015: 102), 이웃사회자본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

은 실태 파악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웃연결망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는 Kim, Lee, & Kim(202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16년부터 3년간의 이웃연결망의 변화를 토대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령의 1인 가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사회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3년간의 단기 변화만을 파악하고 있어 장기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이웃사회자본인 연결망의 크기, 신뢰, 지지 중 어느 하나를 연구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사회자본을 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과 이들 간의 영향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이웃사회자본의 형성 및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과 이들 간의 영향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둘째,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이웃사회자본의 유형

이웃(neighborhood)은 가까이 붙어서 사는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으로써, 상호 간에 대면적 접촉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social network)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치환할 수 있으므로(Bourdieu, 1986: 245), 이웃 간의 연결은 이웃사회자본으로 치환할 수 있다. 이웃사회자본(Neighbor's social capital)은 개인이 이웃과 형성하고 있는 연결망의 크기,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Koutra et al., 2012: 212).

첫째, 이웃크기는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이웃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웃신뢰와 함께 핵심적 사회자본으로 다루어진다(Han et al., 2014: 2-3). 이웃크기는 일반적으로는 서로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이웃의 수로 측정되는데, 그 이유는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웃과의 연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Kim, Jeong, 2016: 75). 연결크기는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Thompson et al., 2022: 1112). 그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연결크기는 관계의 피로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기도 한다(Han, Kang, 2015: 81).

둘째, 이웃신뢰는 개인이 이웃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Luhmann,

1979: 4). 이웃에 대한 신뢰는 이웃 간의 의사소통과 감정의 교류, 정보유통과 협력을 조장하여 개인적으로는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Cha & Yoo, 2017: 52; Park, 2022: 12). 이웃신뢰를 이웃과의 관계 유지의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혈연중심의 두터운 신뢰(thick trust)뿐 아니라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얇은 신뢰(thin trust)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Newton, 2009: 349).

셋째, 이웃지지란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103). 즉,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웃지지는 고민 상담 등의 감정적 교류(정서적 지지), 현금, 노동력, 시간 등을 제공하는 기능적 교류(도구적 지지), 조언이나 필요한 정보의 교환(정보적 지지) 등을 포함한다(Farrell, Aubry, & Coulombe, 2004: 15).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조직이 지닌 문제 해결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왔다(Han & Kang, 2015: 81).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간의 관계이다. 먼저, 이웃크기와 이웃신뢰 간의 관계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웃과의 연결이 크고 많아질 때 신뢰가 증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Cha & Yoo, 2017: 52; Putnam, 2000: 67). 둘째, 이웃크기와 이웃지지 간의 관계이다. 이웃크기는 이웃지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Han et al., 2014: 2-3). 개인이 지닌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곧 동원할 수 있는 자본(경제적 또는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주장(Broudiue, 1986: 249), 이웃크기가 큰 경우 지역 내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된다는 주장(Han & Kang, 2015: 80)이 모두 이웃크기가 이웃지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셋째, 이웃신뢰와 이웃지지 간의 관계이다.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 신뢰가 강할수록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Park, 2022: 12)은 이웃신뢰가 이웃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웃크기가 이웃신뢰를 통해 이웃지지를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거주지역이다. 이웃관계의 형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연결망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정도나 도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행환경이 사회연결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연구도 있고(Joung, 2014: 23), 지역사회의 인구구조가 젊은 세대들 중심인가 아니면 노인 중심인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사회적자본의 형성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한 연구(Lee, Choi, & Yu, 2008: 125)가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나타나는 이웃연결망과 이웃사회자본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별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웃관계망의 수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 여성이 거주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이웃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가족을 대표하여 이웃과의 대인관계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Lee & Jeong, 2019: 321). 또 다른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연령에 따라 이웃연결망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Joung, 2014: 31). 이것은 연령 또한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려준다.

셋째, 연령 및 자녀유무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웃과의 교류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특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집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노인에게는 자녀와 친척보다 이웃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연구들이 많다(Hurlbert, Beggs, & Haines, 2017: 219; Jung, Kim, & Nam, 2020: 111). 그러나 정유진은 연령에 따라 이웃관계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Joung, 2014: 23). 출산 전의 부부들은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웃과의 관계가 적지만,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20-40대는 이웃관계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넷째, 학력이다. 학력과 이웃연결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한다. 학력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웃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어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는 주장이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2차 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웃관계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관계가 높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Lee & Jeong, 2019: 321).

다섯째, 종교유무 및 참석빈도이다. 종교가 있는지는 이웃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8: 44). 그 이유는 종교는 이타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원봉사를 많이 하며, 공동체의 삶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Putnam & Campbell, 2010: 461). 나아가 종교의 유무보다 종교활동 참석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Byun, 2019: 204; Kim & Kim, 2016: 2). 종교활동 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하고 연대감을 느끼며, 서로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지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2012년과 2023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센터가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국제간 비교 연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국단위 표본 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단계지역확률표집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이웃연결망과 이웃사회자본 관련 자료가 조사된 년도는 2012년과 2023년이였다. 이 두 해는 동일한 대상으로 조사된 것은 아니지만, 매 해 전국 단위 다단계지역확률표집을 했기 때문에 모집단인 한국인의 이웃사회자본 실태를 잘 대표할 수 있고, 11년간의 조사년도 차이는 이웃사회자본 변화실태를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차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과 2023년에 조사된 KGSS의 조사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2012년과 2023년의 연구대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in 2012 and 2023

구분		2012년	2023년	구분		2012년	2023년
		N(%)	N(%)			N(%)	N(%)
거주 지역	농촌(0)	337(27.4)	168(16.9)	학력	중졸이하(0)	392(31.8)	179(18.0)
	도시(1)	895(72.6)	825(83.1)		고졸(1)	369(30.0)	330(33.2)
성별	남(0)	543(44.1)	397(40.0)		전문대졸(2)	118(9.6)	176(17.7)
	녀(1)	689(55.9)	596(60.0)		대졸이상(3)	353(28.7)	308(31.0)
연령대	20대 이하(0)	203(16.5)	83(8.4)	자녀 유무	없음(0)	200(24.4)	270(27.2)
	30대(1)	166(13.5)	151(15.2)		있음(1)	932(75.6)	723(72.8)
	40대(2)	253(20.5)	179(18.0)	종교 활동 참석	전혀 가지 않음(0)	578(46.9)	576(58.0)
	50대(3)	214(17.4)	227(22.9)		일 년에 몇 번(1)	272(22.1)	180(18.1)
	60대(4)	187(15.2)	237(23.9)		한 달에 몇 번(2)	100(8.1)	48(4.8)
	70대 이상(5)	209(17.0)	116(11.7)		일주일에 몇 번(3)	282(22.9)	189(19.0)
				전체		1,232(100.0)	993(100.0)

*() 안의 숫자는 회귀분석을 위해 활용된 더미 변수의 숫자를 의미하며, (0)이 기준 변수를 의미한다.

2. 측정문항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인은 <표 1>과 동일하며,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0(없음)으로 재코딩하였고, 개신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들은 1(있음)로 재코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웃크기는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의 수’로 정의하였고, 이웃신뢰는 ‘이웃을 신뢰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웃지지는 ‘필요한 경우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수’로 정의하였다. 2012년과 2023년에 조사된 이웃사회자본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이웃사회자본 문항의 특성
 <Table 2> Individual background variables and neighbor's social capital items

변수명	내용	척도
이웃크기	귀하와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은 몇 명입니까?	1(0명), 2(1-2명), 3(3-4명), 4(5-9명), 5(10명 이상)
이웃신뢰	귀하는 이웃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1(전혀 신뢰하지 않음), 2(별로 신뢰하지 않음), 3(다소 신뢰), 4(매우 신뢰)
이웃지지	귀하가 필요할 경우에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 2(1-2명), 3(3-4명), 4(5-9명), 5(10명 이상)

3. 분석방법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수준이 2012년과 2023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고,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수준이 개인배경별로 차이가 있는지와 2012년과 2023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이분석(t-test)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Scheffe를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하였다. 또한, 개인배경이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모든 독립변인들을 한 번에 투입하는 동시입력방식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Window용 SPSS 24.0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 수준과 하위 유형 간의 영향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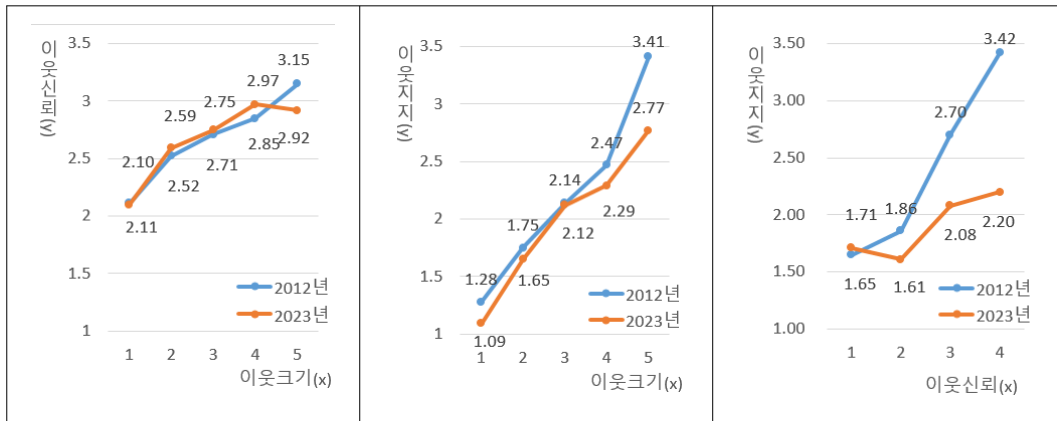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23년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은 2012년에 비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크기가 가장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이 이웃지지이고, 이웃신뢰가 가장 적게 낮아졌다.

2012년과 2023년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간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웃크기가 이웃신뢰에 미치는 영향(2012년: $t=17.157(p=0.000)$, $B=0.233$, $\beta=0.439$, 2023년: $t=10.863(p=0.000)$, $B=0.197$, $\beta=0.328$), 이웃크기가 이웃지지에 미치

<표 3>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neighbor's social capital between 2012 and 2023

구분	2012년	2023년	t(p)
	M(SD)	M(SD)	
이웃크기	3.62 (1.39)	2.74 (0.99)	270.541***
이웃신뢰	2.83 (0.74)	2.67 (0.64)	28.638***
이웃지지	2.56 (1.23)	1.93 (0.98)	198.852***

*** $p < 0.001$



[그림 1]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의 하위 유형 간의 영향관계 변화

[Figure 1] Change in the influence between the subtypes of neighbor's social capital between 2012 and 2023

는 영향(2012년: $t=26.864(p=0.000)$, $B=0.540$, $\beta=0.608$, 2023년: $t=19.833(p=0.000)$, $B=0.393$, $\beta=0.536$), 이웃신뢰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2012년: $t=16.497(p=0.000)$, $B=0.714$, $\beta=0.426$, 2023년: $t=8.517(p=0.000)$, $B=0.321$, $\beta=0.263$)은 2012년과 2023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과 2023년 모두 이웃크기가 증가하면 이웃신뢰와 이웃지지가 증가하고, 이웃신뢰가 증가하면 이웃지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웃크기가 이웃신뢰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2012년과 2023년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웃신뢰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2012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2.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에의 영향 요인 변화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이 개인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2012년과 2023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평균차이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지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2012년에 비해 2023년에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의 하락폭이 도시지역의 하락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농촌과 도시지역의 이웃지지의 차이가 2012년보다 2023년에는 1/2로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농촌과 도시지역의 이웃지지의 차이가 농촌의 이웃지지의 감소폭이 큰 것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이웃크기, 이웃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이웃지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이웃크기, 이웃지지는 2012년보다 2023년에 비슷하게 낮아졌지만, 이웃신뢰의 경우 남자의 하락폭이 여성의 하락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60대와 70대 이상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와 50대였고, 20대 이하와 30대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가장 낮았다. 연령에 관계없이 2012년보다 2023년에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넷째,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졸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가장 낮았다. 학력에 관계없이 2012년보다 2023년에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는데, 특히 학력이 낮은 사람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하락폭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하락폭보다 컸다. 다섯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12년에 비해 2023년에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이웃신뢰와 이웃지지는 2012년보다 2023년에 비슷하게 낮아졌지만, 이웃크기의 경우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하락폭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하락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종교활동에 일 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참석하는 사람들이 종교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종교 활동 참석 정도와 관계없이 2012년보다 2023년에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다음으로 <표 5>는 어떤 개인배경 변인들이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웃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거주지역, 연령대, 자녀유무는 201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이웃크기가 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크기가 컸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이웃크기가 컸다. 성별은 2012년과 2023년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2년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웃크기가 작았었는데, 2023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12년에는 종교유무와 종교활동 참석정도가 모두 이웃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종교활동 참석

<표 4> 이웃사회자본의 개인배경별 차이와 연도별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neighbor's social capital by individual background and by year

구분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	
		2012년	2023년	2012년	2023년	2012년	2023년
		M(SD)	M(SD)	M(SD)	M(SD)	M(SD)	M(SD)
거주지	농촌	4.22(1.15)	3.30(1.13)	3.09(0.68)	2.79(0.62)	3.10(1.25)	2.18(0.95)
	도시	3.39(1.40)	2.63(1.01)	2.73(0.73)	2.64(0.64)	2.36(1.16)	1.88(0.73)
		거주지 t(p): 136.77*** 연도 t(p): 172.60***		거주지 t(p): 48.30*** 연도 t(p): 27.90***		거주지 t(p): 91.49*** 연도 t(p): 167.39***	
성별	남	3.52(1.41)	2.61(1.09)	2.80(0.72)	2.57(0.67)	2.55(1.25)	1.84(0.85)
	녀	3.70(1.36)	2.82(1.04)	2.85(0.75)	2.74(0.61)	2.57(1.22)	1.98(0.73)
		성별 t(p): 13.26*** 연도 t(p): 270.42***		성별 t(p): 12.45*** 연도 t(p): 33.28***		성별 t(p): 2.93 연도 t(p): 201.41***	
연령대	20대 이하(a)	2.56(1.24)	1.82(0.78)	2.47(0.75)	2.38(0.71)	2.06(0.96)	1.51(0.68)
	30대(b)	3.28(1.41)	2.23(0.96)	2.57(0.66)	2.47(0.66)	2.23(1.05)	1.70(0.71)
	40대(c)	3.64(1.27)	2.82(1.03)	2.75(0.65)	2.64(0.67)	2.51(1.14)	1.93(0.76)
	50대(d)	3.91(1.28)	2.66(0.94)	2.95(0.68)	2.70(0.62)	2.70(1.23)	1.99(0.73)
	60대(e)	4.20(1.14)	2.96(1.00)	3.07(0.70)	2.78(0.59)	2.93(1.36)	2.03(0.78)
	70대 이상(f)	4.08(1.30)	3.22(1.16)	3.12(0.73)	2.89(0.53)	2.92(1.35)	2.18(0.86)
		연령대 F(p): 64.15*** (a < b < c, d < e, f) 연도 t(p): 344.25***		연령대 F(p): 34.96*** (a, b < c, d < e, f) 연도 t(p): 37.15***		연령대 F(p): 24.30*** (a, b < c, d < e, f) 연도 t(p): 213.09***	
학력	중졸이하(g)	4.12(1.22)	3.07(1.15)	3.11(0.73)	2.78(0.62)	2.88(1.34)	2.17(0.86)
	고졸(h)	3.72(1.31)	2.77(0.99)	2.80(0.70)	2.75(0.60)	2.62(1.19)	1.90(0.77)
	전문대졸(i)	3.42(1.42)	2.62(1.07)	2.58(0.67)	2.55(0.71)	2.31(1.09)	1.84(0.73)
	대졸이상(j)	3.02(1.39)	2.58(1.04)	2.61(0.69)	2.59(0.64)	2.24(1.09)	1.86(0.74)
		학력 F(p): 42.91*** (i, j < h < g) 연도 t(p): 211.24***		학력 F(p): 31.52*** (i, j < h < g) 연도 t(p): 12.97***		학력 F(p): 21.48*** (i, j < h < g) 연도 t(p): 141.07***	
자녀 유무	없음	2.82(1.36)	2.09(0.94)	2.50(0.73)	2.46(0.70)	2.14(1.06)	1.65(0.76)
	있음	3.88(1.29)	2.98(1.00)	2.93(0.70)	2.75(0.61)	2.70(1.25)	2.03(0.76)
		자녀유무 t(p): 288.58*** 연도 t(p): 199.78***		자녀유무 t(p): 121.25*** 연도 t(p): 11.81***		자녀유무 t(p): 85.29*** 연도 t(p): 131.07***	
종교 유무	없음	3.39(1.40)	2.55(1.02)	2.78(0.72)	2.61(0.65)	2.47(1.19)	1.84(0.73)
	있음	3.77(1.35)	2.99(1.06)	2.86(0.75)	2.74(0.62)	2.63(1.26)	2.04(0.83)
		종교유무 t(p): 59.53*** 연도 t(p): 232.31***		종교유무 t(p): 10.81*** 연도 t(p): 23.07***		종교유무 t(p): 15.71*** 연도 t(p): 178.38***	
종교 활동 참석	전혀 가지 않음(k)	3.42(1.43)	2.55(1.01)	2.78(0.72)	2.62(0.65)	2.49(1.20)	1.84(0.72)
	일 년에 몇 번(l)	3.77(1.27)	3.07(1.08)	2.85(0.77)	2.69(0.66)	2.58(1.27)	1.98(0.88)
	한 달에 몇 번(m)	3.92(1.32)	2.92(1.09)	2.88(0.78)	2.78(0.59)	2.71(1.31)	2.02(0.79)
	일주일에 몇 번(n)	3.77(1.38)	2.96(1.07)	2.90(0.70)	2.77(0.61)	2.64(1.23)	2.11(0.81)
		종교활동 참석 F(p): 19.91*** (k < l, m, n) 연도 t(p): 143.27***		종교활동 참석 F(p): 5.03*** (k < l, m, n) 연도 t(p): 11.22***		종교활동 참석 F(p): 5.20*** (k < l, m, n) 연도 t(p): 104.34***	

*p<0.05 **p<0.01 ***p<0.001

<표 5>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eighbor's social capital in 2012 and 2023

구분		2012년				2023년			
		B	SE	β	t(p)	B	SE	β	t(p)
이웃 크기	상수	3.338	.147	-	22.645***	2.231	.138	-	16.146***
	거주지역	-.547	.085	-.176	-6.469***	-.551	.081	-.195	-6.788***
	성별	-.008	.074	-.003	-.114	.082	.063	.038	1.301
	연령대	.113	.033	.137	3.452***	.109	.031	.151	3.509***
	학력	-.113	.040	-.098	-2.837**	.044	.033	.046	1.308
	자녀유무	.531	.108	.164	4.905***	.591	.088	.248	6.723***
	종교유무	.138	.101	.049	1.364	.255	.093	.119	2.727**
	종교활동 참석	.062	.041	.054	1.509	.005	.039	.006	.127
		R ² =0.190, F=42.250***				R ² =0.207, F=37.715***			
이웃 신뢰	상수	2.764	.081	-	34.125***	2.375	.091	-	25.958***
	거주지역	-.222	.046	-.135	-4.785***	-.095	.053	-.056	-1.785
	성별	-.028	.041	-.019	-.693	.128	.042	.097	3.072**
	연령대	.074	.018	.169	4.105***	.067	.020	.155	3.314***
	학력	-.054	.022	-.089	-2.473*	.004	.022	.007	.182
	자녀유무	.158	.059	.092	2.661**	.116	.058	.080	2.020*
	종교유무	-.081	.056	-.054	-1.459	.016	.061	.013	.267
	종교활동 참석	.052	.023	.086	2.314*	.016	.026	.029	.614
		R ² =0.129, F=27.133***				R ² =0.065, F=10.793***			
이웃 지지	상수	2.667	.137	-	19.403***	1.691	.110	-	15.312***
	거주지역	-.597	.079	-.216	-7.571***	-.242	.065	-.116	-3.737***
	성별	-.081	.069	-.033	-1.178	.080	.050	.050	1.590
	연령대	.087	.031	.119	2.848**	.063	.025	.119	2.552*
	학력	-.041	.037	-.040	-1.104	.011	.027	.016	.427
	자녀유무	.207	.101	.072	2.052*	.197	.070	.112	2.813**
	종교유무	.014	.094	.006	.147	.033	.074	.021	.442
	종교활동 참석	.043	.038	.042	1.130	.047	.031	.070	1.488
		R ² =0.108, F=22.350***				R ² =0.075, F=12.417***			

* $p<0.05$ ** $p<0.01$ *** $p<0.001$

정도는 여전히 이웃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웃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연령대, 자녀유무는 201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신뢰가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이웃신뢰가 높았다. 2012년에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이 이웃신뢰가 낮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웃신뢰가 낮았다. 성별은 2012년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는데, 2023년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이웃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2년에는 종교유무가 이웃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종교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이웃신뢰가 높았었는데, 2023년에는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여 정도가 전혀 이웃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거주지역, 연령대, 자녀유무는 201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이웃지지가 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지지가 컸으며,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이웃지지가 컸다. 성별과 학력은 2012년과 2023년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여 정도는 201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과 2023년의 이웃사회자본(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과 이들 간의 영향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고, 이웃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중에서 2012년 조사된 1,232명과 2023년 조사된 99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평균차이분석,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 비해 2023년의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은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는데, 특히 이웃크기가 가장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이 이웃지지이고, 이웃신뢰가 가장 적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 1인가구의 이웃연결성이 3년간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 감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한 연구(Kim, Lee, & Kim, 2023: 1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는 20대 이후 전 연령대의 사람들의 이웃사회자본이 10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실태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의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의 행복과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이므로(Cornwell & Waite, 2009: 34; Putnam, 2000: 67),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과 2023년은 모두 이웃크기가 이웃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웃크기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웃신뢰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같은 연구결과는 이웃과의 연결이 큰 경우 신뢰가 증진된다는 주장(Cha & Yoo, 2017: 52; Putnam, 2000: 67), 이웃크기가 이웃지지로 이어진다는 주장(Broudiue, 1986: 249; Han et al., 2014: 2-3; Han, Kang, 2015: 80), 신뢰가 강할수록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Park, 2022: 12)과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2023년은 2012년보다 이웃신뢰가 이웃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1/2배로 줄어들었음을 밝힌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수준의 이웃지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웃크기와 이웃신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웃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12년과 2023년 모두 거주지역, 연령대, 자녀유무였고, 2012년에는 이웃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종교유무가 2023년에는 영향력이 커졌다. 그러나 종교활동 정도는 2012년과 2023년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웃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12년과 2023년 모두 연령대와 자녀유무였고, 2023년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성별이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종교행사 참석이 이웃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23년에는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정도가 전혀 이웃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웃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012년과 2023년 모두 거주지역, 연령대와 자녀유무였고, 2023년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종교유무 및 종교행사 참석 정도는 201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Hurlbert, Beggs, & Haines, 2017: 219; Joung, 2014: 23; Jung, Kim, & Nam, 2020: 111)과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2012년에 비해 2023년에 하락폭이 큰 집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이웃사회자본과 고연령대의 이웃사회자본이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농촌지역 인구의 46.8%가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인 점을 고려할 때(Ryu, Oh, & Lee, 2022), 농촌지역 이웃사회자본의 하락과 60대 이상 노인의 이웃사회자본의 하락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에게는 이웃관계가 자녀와 친척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므로(Hurlbert, Beggs, & Haines, 2017: 219; Jung, Kim, & Nam, 2020: 111),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이웃크기 하락폭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하락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종교의 중요 가치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웃크기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웃사회자본의 형성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은 도시 거주민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웃크기 향상을 위해 취미, 문화예술, 운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웃관계의 형성은 자주 마주칠 기회로부터 시작되므로(Lee & Jeong, 2019: 318; Park, 2022: 9), 근접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의 공

급과 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중년층을 위해서는 자녀 교육 나눔터를 형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 상담, 자녀 돌봄 부탁, 교육관련 정보의 획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남성인 부모까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면, 남성의 이웃신뢰 향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주민 교육활동, 주민 동아리 활동을 더 활발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이웃크기 하락폭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하락폭보다 큰 이유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치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베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Putnam & Campbell, 2010: 461). 따라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으로 옮기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종교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는 시민의식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Putnam & Campbell, 2010: 461), 종교활동이 동아리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단체봉사활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연결크기는 관계의 피로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므로(Han & Kang, 2015: 81), 이웃크기의 증가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개인배경 요인(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학력, 자녀유무, 종교유무, 종교활동 참석)이 이웃크기, 이웃신뢰, 이웃지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6.5%-20%에 머물러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이나 주거특성(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 교통여건, 교류공간 확보 수준, 교육지원 서비스 등의 지역 환경 변인, 직업 유무 등을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2년과 2023년이라는 두 개 시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대상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종단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년도에 따른 변화추이만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한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Richardson, J. G.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pp. 241-258). New York: Greenwood Press.
- Byun, S. J.(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Religion and Religiosity on the Social Capital Creation in Korea. *Theology and Society*, 33(3), 203-248.

- Cha, J. K. & Yoo, T. G. (2017). 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rust: In Terms of Social Capital Theory.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7(2), 51-80.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s Stress.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31-48.
- De Silva, M. J., McKenzie, K., Harpham, T., & Huttly, S. R.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ical Community Health*, 59, 619-627.
- Farrell, S. J., Aubry, T., & Coulombe, D. (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be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 9-26.
- Han, B. Y. & Kang, J. H. (2015). The Impact of Population Density and Neighborhood on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Multilevel Analysis Using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Combined with Region-level Dat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8(3), 75-111.
- Han, J., Kim, S. H., Ha, S. E. & Shin In Ch. (2014). Ambivalent Effects of Social Relations on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5), 1-24.
- Hurlbert, J. S., Beggs, J. J., & Haines, V. A. (2017).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in Extreme Environments. Lin, N., Cook, K., & Burt, R. S.(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pp. 209-231). Routledge.
- Joung, Y. J. (2014).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Relation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Focused on the Family Life Cyc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Jung, J. Y., Kim, E. P., & Nam, S. I. (2020).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atisfaction Types and Neighborhood Relationships of Older Peopl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6(4), 107-136.
- Kim, E. H., Kim, J. B., & Kang J. H. (2020).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Units and Neighborhood Effects in Seoul: Link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ith Three Administrative Data Sources. *Survey Research*, 21(2), 1-23.
- Kim, J.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atisfaction of Life among the Women Elderly.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2), 29-62.
- Kim, S. I. & Kim, J. B. (2016). The Effects of Religious Affiliation and Religious Attendance on Suicide Attitud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9(4), 1-28.
- Kim, T. G., Lee. S., & Kim, K. S. (2023). Classification of Changes in Neighborhood

- Connectivity among Resident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Verification of Influencing Factors Applying Growth Mixture Model: Focusing o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SH Urban Research & Insight*, 13(1), 1-22.
- Koutra, K., Roumeliotaki, T., Kritsotakis, G., Kokkevi, A., & Phialithis, A. (2012).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Youth Social Capital in Greec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2(3), 333-343.
- Lee, H. M. (2018). *Interperson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among One-person Househol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K. Y. & Jeong, M. G. (2019). A Study on the Factors of Neighborhood Relations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Regions in Gyeonggi Province.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3(4), 315-348.
- Lee, S. J., Choi, J. K., & Yu, H. J. (2008). Influence of Soci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upon Their Social Capital: The Case of Jongno-Gu.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2(4), 101-132.
-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Two Works by Niklas Luhmann*. New York: John Wiley & Sons.
- Newton, K.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Dalton, R. J. Klinemann, H. D.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pp. 342-361).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B. H. (2022). *A Study on the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s on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utnam, R. D. & Campbell, D. E. (2010).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 and Unite Us*.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Ryu, D. I. Oh, Y. J., & Lee, Y. M. (2022). *2021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aejeon: Statistics Korea.
- Thompson, A., Smith, M. A., McNeill, A., & Pollet, T. V. (2022). Friendships,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A Limit to the Benefit of the Number of Friends. *Ageing & Society*, 44(5), 1090-1115.